

미얀마: 라킨족 (Rakhine, Arakanese of Myanmar (Burma))



인 구 : 1,880,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남서부, 라킨 주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라킨족어

종 교 : 소승불교

기독교 : 복음주의자(0.04%)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미얀마의 라킨족 사람들은 영국사람들에게는 아라킨족, 버마족 사람들에게는 야킨족, 국경 주위 방글라데시에 사는 무슬림들에게는 몽족으로 알려져 있다. 라킨족은 몽골계열의 사람들로서 네팔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다른 종족과 혼혈된 오래된 종족그룹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뚜렷히 구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킨족어는 그들의 종족어이다. 소승불교는 그들의 종교이며, 과거 라킨족은 매우 종교성이 많은 종족들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었다.

라킨족은 독립적인 왕국이었고, 치타공에서부터 랭군에까지 그 영역을 넓혔었다. 라킨족은 쇠퇴와 내부 정변을 겪으며 1784년 버마족에게 점령을 당했고, 그 때, 많은 라킨족 사람들은 북서쪽으로 도망쳤고 현재의 방글라데시까지 이르렀다. 1825년 영국 라킨주를 통해 미얀마에 첫 발을 디뎠다. 그 후 1886년 영국이 미얀마 전체를 점령했다. 1948년 영국은 미얀마에게 통치권을 버마인에게 넘겨주었다.

생활양식

주식은 쌀과 야채이다. 고기는 때에 따라 생선과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매운 고추는

양념으로 쓰인다. 식사는 늦은 아침과 밤이 되기 전에 먹는다.

라킨족은 문화뿐만 아니라 월력도 쌀농사를 시작할 때와 추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어업도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낮은 임금율과 고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모든 가족은 한지붕 아래 함께 거주한다. 집안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되지만, 여자들은 가족들이 결정해야 하는 활동적 역할을 감당한다.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며 남자들은 먼저 먹는다. 그것은 라킨족 문화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과 행동이다.

구조적으로 버마족과 매우 비슷하지만, 그들의 발음과 언어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라킨족은 버마족과 같은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알파벳이 통용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다.

정략결혼이 일반적이지만, 연예결혼도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다. 타문화권 사람과의 결혼은 장려되지 못한다. 1부 1처제를 결혼제도로 하고 있다.

라킨족 소년들은 불교사원에 몇 달간 생활하며 불교제의를 경험하게 된다. 후에 20살 가까이 되었을 때 많은 라킨족 남자들은 사원에 오랜 시간 머문다. 승려들은 사원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불교승려들은 라킨문화 가운데 존경과 대접을 받는다.